

# “옛 도청 복원 의지·대책 제시를”

### 5·18 대책위, 오늘 광주 방문 도종환 장관에 요구키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 건물 훼손 상황을 직접 둘러볼 계획이어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복원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6일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복원 건의서를 전달 한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 도 장관에게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도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옛 전남도청 복원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종환 장관은 5·18외곡과 폼하에 시달려왔던 5월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옛 전남도청 복원의 확실한 의지와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해 5·18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 진상규명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 일대를 둘러보고 오후 4시 대책위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대책위는 ‘옛 전남도청 복원 약속’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고, 도 장관은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 건물 훼손 상황을 직접 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건의서 등을 통해 옛 경찰청(2291㎡)에 조성된 전시물을 문화창조원 복합관 등으로 옮기고 도청본관, 별관, 회의실(민원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사무관의 원형을 복원해 1980년 5월 당시를 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 장관의 광주 방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역사적 현장인 전일빌딩과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문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된 옛 광주일보 사옥인 전일빌딩 10층을 원형 보존해 교육·기념공간으로 활용하는 광주시의 기본안이 나왔다.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전담반’(TF)은 탄흔 177개가 발견된 옛 전일방송 기자재실을 포함한 전일빌딩 전체를 원형 보존하되 전시공간으로 꾸며 관람객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세웠다.

최근 5·18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옛 광주교도소부지(10만6771㎡) 일대에 민주인권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총사업비 1175억원이 소요되는 민주인권기념공원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소유인 옛 교도소 부지 무상양여이며,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 사업은 빠져 있다.

현재 광주시는 정부 부처와 무상양여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5·18의 역사적 현장의 보존·활용하겠다는 광주지역의 염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삼성 이재용 징역 5년 5개 혐의 모두 유죄

### 특검·변호인측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이 일부 액수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영수 특검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검팀 사법 양측은 지난 25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각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

형이 나온 데 대해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특검팀은 ‘답답하다’는 표현으로 온도 차이를 보였지만, 항소하겠다는 의지는 동일하게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재판은 수사부터 선고까지 줄곧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을 뿐 아니라 개별 정경이 복잡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이 부회장에 적용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혐의별로 구체적인 공소 사실 중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엇갈렸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1심 판단을 뒤집는 시도를, 특검은 중형을 받아내기 위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 3부(조영철 부장판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 13부(정형석 부장판사)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인정 박근혜 앞날 먹구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승마 지원금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당사자, 박 전 대통령은 그 뇌물을 받은 수수자로 기소돼 있어 이 부회장의 유죄 판단은 대청정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까지 인정할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을 뇌물공여죄로 인정했다. 정씨에 대한 지원이 최씨에 대한 지원과 같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의 딸 구입비 등 77억원 받은 것으로 봤고,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마필 수송 차량 구입비 등 5억원을 제외한 7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공소장에 빠져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김정은 문체부 차관 등에게 승마 선수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고,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질책하며 임원 교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에 최씨가 있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



동·남 오작교 교류 한마당. 지난 25일 푸른길 남광주시장 구름다리 일원에서 진행된 ‘동·남 오작교 교류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김성현 동구청장과 최영호 남구청장, 동·남구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네루 물품을 전달하고 양 구간의 화합을 다졌다. <광주 동구청 제공>

# 문 대통령 재산 18억2200만원...1년만에 3억 늘어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퇴직 때보다 3억1500만 원 가량 늘어난 18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5월 임명된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9억7892만4133원이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19대 국회의원 퇴직 당시 15억7000만원이었으나, 예금이 3억 원 가량 늘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산은 4억3400만원인 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93억1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용호 국가안보실장은 23억8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수석비서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었다. 조 수석은 본인·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 20억 원을 포함해 총 49억8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많은 재산

을 신고한 수석은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운영진 국민소통수석으로 총 19억4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병헌 정부수석도 12억9900만원으로 10억 원 대를 넘겼으며 김수현 사회수석은 총 12억6600만원, 조현욱 인사수석은 7억13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비서관 중 가장 재산 신고액수가 적은 사람은 이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3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송영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정순관 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통령 소속 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4) 의원을 위촉했다. 같은 대통령 소속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순관(59) 순천대학교수가 발탁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송 위원장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 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

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 및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대통령과 연세대를 졸업한 송 위원장은 4선의 여권 중진으로 지난 5월 말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문 대통령의 북방경제 협력 비전을 전달하는 등 ‘러시아통(通)’으로 불린다.

정순관 위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일해왔다. 박 대변인은



송영길 위원장 정순관 위원장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폭넓은 경험으로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고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순천대 총장 후보 1순위에 올랐지만, 교육부가 2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5기)	광주교육대학교(16기)
개강일시	·해요일 오전반: 2017. 9. 5.(화)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 9. 9.(토) 09:10 (특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7. 9. 7.(목) 09:10 (중급반) ·금요일 오전반: 2017. 9. 8.(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 9. 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8. 1(화)~9. 9.(토)	2017. 8. 1(화)~9. 9.(토)
수업기간	2017. 9. 5.(화)~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9. 7.(목)~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인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등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인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등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 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9월 8일(금) 주간 10시, 야간 7시

- 모집기간: 2017년 8월 2일(수) ~ 2017년 9월 8일(금)
- 교육기간: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usun.ac.kr/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9월 5일(화) 야간 7시

- 모집기간: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9월 8일(금)
- 교육기간: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순천대학교) 농협 643-01-007060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il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